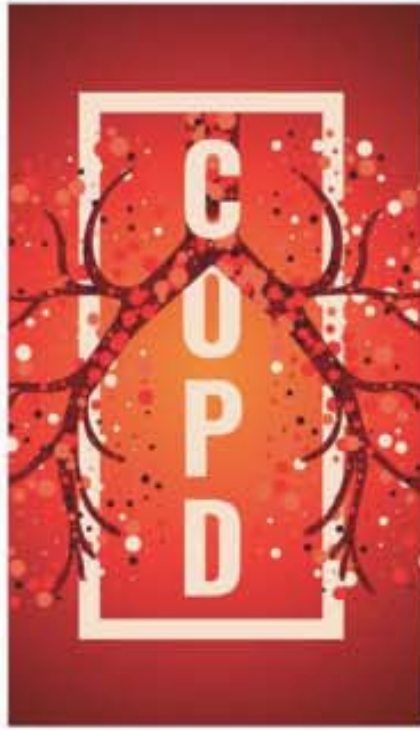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괴롭히는 COPD! 기침과 숨참 증상을 정복하라

복합요법! 환(丸)과 탕(湯)의 만남이 심폐기능을 올린다

COPD(만성폐쇄성폐질환)가
궁금하다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는 한마디로 폐가 손상돼 숨쉬기 힘들어지는 질환으로 현재 국내 사망원인 7위다. 무섭고 심각한 질병으로 호흡기학회에서는 현재 국내 45세 이상 성인 약 18%가 앓고 있는 것으로 본다. 초기 증상은 갑자기 기침·가래로 시작하다 나중에는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숨이 차게 되는데 나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이어진다.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어지며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심폐기능을 올리는 것이 최고다

COPD가 증세가 심해지면 폐가 점차 딱딱해져 호흡이 힘들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산소증이나 심근경색증, 협심증 같은 합병증이 생긴다. 결국 이를 이겨내려면 심폐기능을 올리는 치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의 필자인 김남선 원장이 오랜 기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연구해 만든 처방이 바로 '김씨 녹용영동탕'과 '김씨 공심단'이다. 영동탕은 탄약제이고 공심단은 환약제인데 이를 함께 복용해 폐 COPD를 근치시키는 것이 바로 콕테일 복합 한방약물요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흡연, COPD를 만드는 최고의 적

COPD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담배엔 4000여 종의 미세하고 해로운 담배 유해물질 입자가 있는데 이것이 폐포에 축적되면 폐포가 손상되고, 평창해 터지기도 한다. 전체 환자 80~90%의 원인이 흡연 때문으로 추정하며 간접흡연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

매연,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등 환경적인 요인들도 COPD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치료시기 놓치기 전 미리 예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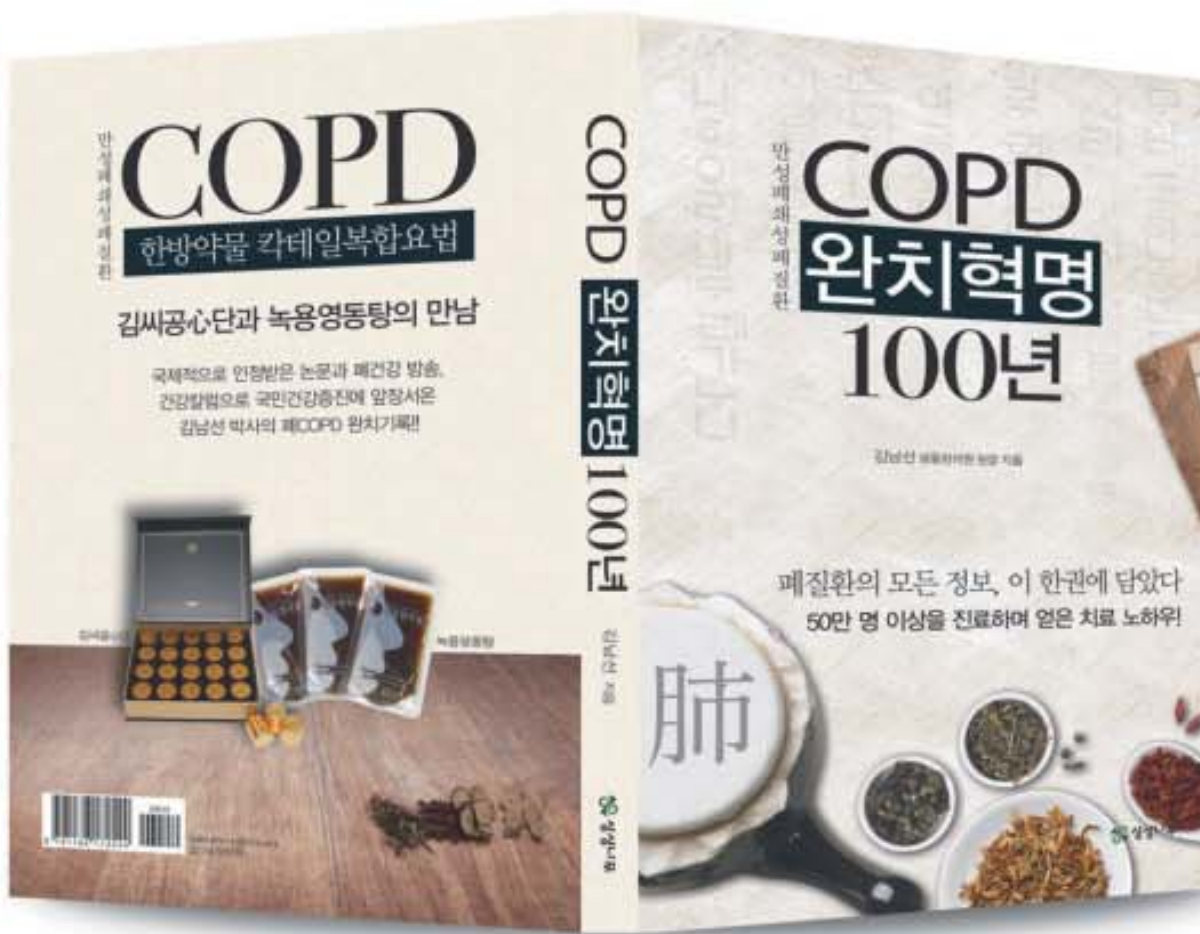
보통 하루 담배 한 갑 이상을 10년 이상 피운 40세 이상, 반 갑을 피웠으면 20년 이상 피운 경우에 COPD 환자가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장기간 간접흡연, 화학약품과 석탄 등 분진 노출, 미세먼지(매연, 조리시 연기 등 실내·외 오염), 고령, 유전자, 천식, 기도과민반응자 등이 주로 발병된다고 보면 된다. COPD는 초기에 가래·기침이 발생하고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쉽게 치유나 회복이 안되는 폐

폐 기능은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기 힘들기에 더 유의해야 하는 질병이다. 때문에 증상을 기억해 조기에 진단하고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폐 기능 검사를 받고 급

고통스런 폐질환! 5장6부를 잘 다스려 이겨라 폐기저질환 예방 및 관리법 수록. 폐질환자 필독서

40년간 영동한의원을 운영하며 얻은 폐임상 지식과 근치기록을 수록한 책



연은 필수이며, 이미 COPD를 앓고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COPD 4기 환자의 약 30%가 폐렴으로 사망하기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오장육부 다스리기가 최고 관건

저자 김남선 원장은 "오장육부가 잘 다스려질 때 COPD가 완쾌된다고 믿기에 약은 몸 전체를 보하는데 중점을 두되 특히 심장의 비중이 커야 한다"며 "그래서 기관지나 폐포를 살리면서 폐기능은 올리고 면역을 증진시키는 기능재생에 치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환경 오염과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COPD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단순치료보다 전인처리가 중요하기에 폐만 보지 말고 오장육부 전체를 보면서 병을 다스리라.

전국 서점 판매중

COPD 완치혁명 100년

성심당 www.smbooks.com
김남선 저 | 240쪽 | 값 14,500원

한방약물 콕테일 복합요법 사용한 사례 2

"신기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숨쉬기가 편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했지만 한의사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환자가 지시를 잘 받아주며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을 때이다. 여의도에 사는 69세 이상열 씨는 2년여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많아지고 숨이 차면서 코도 잘 막히는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수면 중에 숨이 멈추는 듯한 느낌도 있자 더 이상 방치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내원한 경우였다. 진찰해 보니 흡연도 많이 해 가슴

이 조이는 듯한 증상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미 병원에서 혈중산소포화도(SPO2)를 검사한 결과 79%로 낮았다. 김씨영동탕에 소청영동탕을 합방하여 처방한 결과 기관지의 폐쇄성이 사라져 여간 기쁘지 않았다. 본인의 요청으로 한결기 호흡연약약인 생매탕 복용을 하면서 최근 다시 혈중산소 포화도를 검사한 결과 96%가 되어 나도 본인도 크게 기뻐했다. 이는 폐섬유화증 증상이 개선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폐기능이 강화되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만난 환자 중에 서울 신림동에서 온 안복순이란 57세 주부도 있을 수 없다. 그녀는 폐와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2008년 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한 전력이 있고 한 때 결핵을 앓아 치료한 경험도 있다고 내게 털어 놓았다. 그녀는 지금도 평소 기침이 지고 숨이 찬 편이며 심정도 약해 큰 소리에 잘 놀라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실상 심폐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

난 그녀에게 의사를 믿고 꾸준히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많은 내방 환자들처럼 약을 복용하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차도를 확실히 경험하지 않으면 불신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몸의 오장육부를 다스려 천천히 병력을 고치는 한방은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리며 몸을 만들어야 한다. 안복순 씨는 내 처방을 6개월간 잘 지켜 주었고 만성 기침 가래와 숨찬 증상이 95%는 사라졌으며 감사를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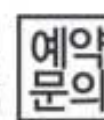
☎ 심의번호 : 제181127-중-33195호

24시간 지속되는 '색색'거리는 숨소리

혹시 나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영동한의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악화된 폐 기능을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영동한의원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27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 3번 출구(강남구청 사거리에서 도보 100m)



02) 542-9557
www.eznose.com

